

‘격랑 2014’ 이슈 진단

① 참사로 얼룩진 대한민국

안전대책 어디까지 왔나

법안은 계류중, 매뉴얼은 정비중 세월호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세월호 3법도 진통끝 겨우 국회 통과 지자체 대대적 안전점검 결할기 우려

‘교훈으로 삼자’,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입버릇처럼 말했던 ‘안전 우선주의’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안전 법안 100여개... 여전히 계류중=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수십여개의 안전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법안만 무려 1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상당수 법안은 시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이른바 세월호 3법인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가능해졌고 무능한 해경 대신 국가안전처가 재난사고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게 됐다. 유병언법의 통과로 범죄자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여기에 여객선 선령요건을 23년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강화한 해운법 개정안과 선원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원법 개정안, 선박 검사 및 증측 기준을 강화한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선박관리업체와 선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4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다, 20t미만 어선의 선원 고용 현황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일부 법률개정안 등 4개, 효율적 수색구조를 위해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상의 구명설비 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해사안전감독관의 검사권한을 강화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 등 37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매뉴얼도 여전히 정비중=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9월까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토록 지시했다.

전남도는 25개 재난으로 나눠 33개 매뉴얼을, 22개 시·군에서는 각각 18~22개씩 433개의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 상황 발생 때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매뉴얼은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항공기와 원전사고 등 피해사례가 없는 재난 유형의 경우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제작에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점검...결할기 점검 아니길=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도 잇따랐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주요 시설물(1263개소) ▲저수지·댐(89개소) ▲다중이용시설(64개소) ▲특정대상시설(3104개소) ▲전통시장(24개소) ▲지역축제 행사장(21개소) ▲환기구(309개소) ▲여가·숙박시설(876개소)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전남도의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4174개소)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1106개소) ▲여가·숙박시설(4154개소) ▲다중이용 취약시설(100개소)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집회·종교시설 등 158곳과 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66곳, 노인요양시설 138곳 등에 대해 소방시설 결함,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 안전점검 서류 관리 등 소방특별점검을 했다.

목포·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카페리·차도선형 화물선 92척에 대해 선박안전점검과 불시승선 점검을 실시, 목포의 경우 안전규정을 위반한 10척(소방 10건·구명설비 9건·선체 결함 9건·기관 결함 9건·화물 고박 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의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도 추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수박 결할기 점검이 아니었길 바랄 뿐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아시아재해긴급구조협의회 창립 의약·국제교류단체 등 참여

광주시는 14일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대규모 재해 피해 지역을 돕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인 ‘광주아시아재해긴급구조협의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민선 6기 윤창현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 중 하나로, 최근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협의회는 광주지역 의약 5단체, 국제교류단체 등에서 참여하며 해외봉사활동을 펼친 단체회원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5일 열리는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에서 활동할 임원을 선임하고, 앞으로 협의회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긴급구조사업을 발

굴·지원하고 긴급구조팀 선발과 자원활동가 모집, 재난복구활동 지원 등 재난 관련 단체 간 활동을 조정하는 민관 협력의 창구역할을 맡게된다.

이경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최근 홍수, 지진,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 피해 중 약 5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활동으로 아시아인들의 어려움에 언제나 응답하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광주시 동구 대원빌딩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전광판 앞에서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의 결집된 힘이 성공 대회 밑거름”

광주 U대회 D-200...조직위원장 윤창현 시장 인터뷰

세계 대학 스포츠인들의 한마당인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창현 광주시장을 만나 U대회 준비상황과 운영 정점, 시민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대회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신경을 많이 쓰시죠. 대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회 운영 능력이다. 대회 준비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대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경기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U대회 조직위 전 직원들은 지난 11월부터 현장점검 체제를 가동 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실전에 가까운 리허설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수단이 공항에 도착해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정성을 기울이겠다.

-운영비 절감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비가 줄어 인건아시아간 임금과 같은 대회 운영 미숙이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광주U대회는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를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왔다. 경기장 시설을 최소화했고, 선수촌을 전역 민자로 유지했다.

예산절감으로 대회운영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장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고 있으며, 개·보수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경기장을 맞춰주고 있다. 국제대회 수준의 경기장을 준비하고, 예산을 줄였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했다. 국제대회의 운영은 예산뿐만 아니라 흥행, 안전, 기록 등 대회 전체적인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원만한 대회운영으로 큰 사고 없이 안전한 대회를 치를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스포츠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는 과도한 예산 투자가 아닌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내달부터 경기준비 리허설

‘저비용 고효율’ 모델 만들 것

있다. 국제대회 수준의 경기장을 준비하고, 예산을 줄였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했다.

국제대회의 운영은 예산뿐만 아니라 흥행, 안전, 기록 등 대회 전체적인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원만한 대회운영으로 큰 사고 없이 안전한 대회를 치를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스포츠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는 과도한 예산 투자가 아닌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광주U대회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전북으로 경기장이 나뉘어져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의 협조 체계가 잘 꾸러졌는지 궁금하다.

▲광주U대회지만 젊은이들이 ‘남도’를 찾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안에서 광주가 ‘큰 집’ 노력하기보다는 전남·북과 함께 남도의 따뜻한 정과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광주U대회 경기장은 총 70개소이며 광주, 전남·전북에 나뉘어져 있다. 조직위에서는 전·남북 소재 지자체를 방문해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협의해 가고 있다. 12월까지 모든 경기장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북 해당 시군을 방문해 광주U대회 기간 중에 지원 요원 파견을 부탁하고, 자원봉사자의 추가 모집과 경기장 이용 및 사용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규모의 체육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5년은 세계로 뻗어가는 열린 도시 광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이다. 아시아문화전당에 개관하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다. 그리고 2만여명의 세계인들이 유니버시아드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게 된다.

세계 선수들을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모난 것이 없는 집 한번 더 살펴보고, 내 집에 머물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또 어떤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드릴 것인지, 어떠한 불거리와 출길 거리를 선물할 것인지 정성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우리 자녀와 미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국립순천대학교

2015학년도 특성화고교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 지원자격 | 특성화고교(농업, 공업, 상업, 실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이상 산업체 근무자
- 입학전형 | 무시험 입학가능(서류 및 면접 선별)
- 모집학과 |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
- 정규학과와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
- 수업은 주2~3일 야간 운영
- 국립대학의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혜택 (2014학년도 장학금 지급율 100%)

1. 모집시기 : 정시 [2014년 12월 19일(금) ~ 12월 24일(수)]
2. 모집단위 학과

단과대학	학과	모집인원	비고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35명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	35명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4. 12. 19(금)~12. 24(수) 18:00까지	유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 http://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14. 12. 26(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255 순천대학교 입학관리과
면접고사	2015. 1. 21(수)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15. 1. 29(금)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출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5. 2. 4(수) ~ 2. 11(수)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등록금 납부	2015. 2. 5(목) ~ 2. 12(목)	지정 금융기관
	2015. 1. 30(금) ~ 2. 3(화)	지정 금융기관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성화고(농업, 공업, 상업, 실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포함을 졸업한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재직자(2015. 3. 1. 기준 재직자에 한함)	1. 1. 1. 입학원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원고 납세증명서 각 1부) 3. 고교 졸업증명서 1부(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문의처
 - 평생학습중심대학 후진학거점센터 : 750-5120
 - 물류비즈니스학과 사무실 : 750-5110
 - 융합산업학과 사무실 : 750-3580

꿈을 향한 도전, 세계로! 미래로!

국립순천대학교